



해양부, IMO 해사안전위원회 대표단 파견 정부와 학계, 조선업계, 검사단체 전문가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심의에 적극 참여

해양수산부는 5월11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사안전위원회에 해양부, 학계, 조선업계, 검사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선박 복원성 관련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안 심의, 장거리선박식별추적장치(LRTT) 도입 강제화 및 해상안전과 보안 증진 등에 관한 주요 의제 검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적인 정비만 실시해도 일정기간(25년) 이상 안전운항을 보장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논의 중인 목적기반신조선건조기준(GBS) 제정 검토 과정에 조선업계 전문가를 자문으로 참가시켜 논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장거리선박식별추적장치 강제화를 위한 SOLAS 협약 개정 논의시에도 우리 국적선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특별활동으로 ISPS Code 도입 이후 SOLAS 협약 비적용 선박에 대한 보안조치 강제화 움직임과 관련한 각국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IMO가 회원국의 국제협약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IMO 회원국감사제도(MAS)에 대비한 각국의 준비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회의 중 각국 대표와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만에서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발한 해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외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사안전위원회는 기국 협약준수전문위원회 등 산하 9개 전문위원회에서 협의된 국제협약 제·개정 등 각종 기술기준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역할을 하는 IMO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매년 1-2차례 개최되고 있다.

상장 물류기업 지난해 사상최대 호황 누려 매출 27조560억원으로 전년비 18.6% 증가

물류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증가와 전업종 중 최고 수익성 신장세를 기록하는 등 최대 호황을 구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이 최근 발표한 '2004년 물류기업 경영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 물류기업의 매출은 27조560억원으로 전년대비 18.6% 늘어났다. 또 경상이익은 2조9400억원으로 615.3%, 당기순이익은 2조1870억원으로 1628%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상이익 증가율은 전산업 중 은행업에 이어 2위,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위를 차지했다. 부채비율은 231.5%로 2003년의 327.3%에 비해 100%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세계경기 회복, 중국 경제활황 등으로 해상수출입 물동량이 폭증해 운임이 급상승했고, 항공분야에서도 고가 수출입물동량과 해외여행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입과 주로 관련된 해상 및 항공운송업은 초호황을 보였지만, 내수영업 위주의 육상운송업은 소폭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